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그늘집 이용 안 해도 된다

골프 대중화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18일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4년(2018~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총 1627건이었다. 2021년의 경우 상담 유형은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위에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해 사업자단체에게 표준약관 개정 심사를 청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한국골프장경영협회와 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절

공정위, 소비자 보호 위해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 예약취소 위약금, 그린피의 최대 30%로 못 박아

차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표준약관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의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

따라서 골프장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이용예정일 3일 전, 평일이 경우 이용 예정일 2일 전부터 예약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취소일에 따라 특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위약금의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공휴일 이용일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 전, 평일 이용일의 경우에는 3일 전으로 현행에 유지했다.

또한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날짜에 따라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게 해 사업자에게도 동등한 위약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위약금의 기준이 되는 요금을 제조·제하 제1호를 인용해 '특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으로 했다. 특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와 이용 예정 인원 수에 따라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기본 이용료에 해당되는 '골프코스 이용에 따

른 요금'에 카트이용요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하고 요금의 세부 내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예약금 및 위약금을 '입장료'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입장료에 대한 정의가 없어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카트이용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 시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부터는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준규 기자 jyang@skyedaily.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0년 만에 개방한 '열린송현'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완·윈터 페스티벌(완·윈터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완·윈터 페스티벌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중기)·소상공인과 함께 하기 위해 25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그동안 사용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명칭 대신 올해부터는 '동행축제'로 브랜드를 통합해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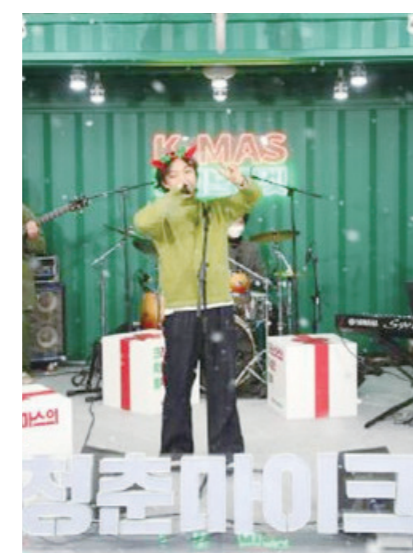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개막식 본 행사는 이영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완·윈터 페스티벌의 서막을 알리는 점등식을 가졌다.

이영 장관은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처럼 완·윈터 페스티벌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점등식에는 빛이 어두운 밤을 비추듯 중소기업인이 코로나19로 어두웠던 시기를 이제는 환하게 밝혀 나가자는

"3高는 가라"

서울 완·윈터 페스티벌 '동행축제'로 브랜드 통합



완·윈터 스테이지에서 하루 총 13회 열리는 버스킹 공연 모습. 중기부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희망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가 있다.

이번 완·윈터 페스티벌은 우수 청년 소상공인 및 관련 협회·단체장을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홍소핑·배달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193개와 오프라인 22개 등 총 215개 채널·4만7000여 업체가 참여했다.

행사 기간에 증가·소상공인 우수 상품을 전시한 쇼룸 등을 운영한다. 버스킹 공연·미디어쇼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이 밖에 완·윈터 페스티벌에 관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만년의 조명 만들기·신년운수 타로카드·캘리그래피·포토 키오스크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행사가 열리는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형 트리와 조형물 등이 설치돼 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인근 상점에서 상품 구매 시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반품 지원"... CU, 가맹점과 '상생의 길' 간다

내년부터 폐기지원금 月40만 원→50만 원

편의점 CU는 폐기지원금 한도를 늘리고 장기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반품 지원비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가맹점 상생 지원안'을 마련했다.

CU는 내년부터 가맹점에 지원하는 폐기지원금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린다.

또한 기존 신상품 도입 지원금 제도(월 최대 15만원)는 현행 유지하고, 장기간 판매되지 않는 상품들을 반품할 수 있는 '저회전 상품 철수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반품 지원금은 직전 분기 신상품 도입률에 따라 분기마다 5만 원을 지급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해 상생협력펀드 이자지원 제도의 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한 지난해 신규 도입된 생산물배상책

임보험도 기존 즉석조리에 한정된 배상 범위를 식품과 비식품 전체로 확대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상품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을 시 즉시 보상을 진행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통합유지보수 업체 관리 대상 품목 무료 교체 △중점기 기능성 부품 지원 △점포 간판 및 조명 교체 등 점포 운영과 관련된 시설 항목들의 서비스 지원 기준은 올해와 같이 진행된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CU가 선보인 역대 최대 규모의 가맹점 상생지원안이 점포의 일반상품 매출 향상을 이끌며 점포당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CU가 2023년도 가맹점 상생 지원안을 마련했다. BGF리테일

CU에 따르면 신규 상생지원안 적용 이후 CU 가맹점은 신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22% 올랐다. 같은 기간 폐기지원 대상 상품 매출 역시 13% 늘었고 점포가 매달 받는 지원금도 15% 증가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CU는 점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보완해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윤 기자 nykim@skyedaily.com

중근당건강

눈 나이 먹지 말고 아이클리어® 먹자!

아이크리어® 루테인지아잔틴

황반의 중심부부터 주변부까지 눈 노화 집중케어!

황반 전체에 존재하는 '루테인' + 황반 중심부에 집중된 '지아잔틴'

특별한 할인혜택! 1644-0884
중근당건강 공식판매센터

노화로 인해 감소되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아이크리어® 루테인지아잔틴

아이크리어® 루테인지아잔틴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
비타민 A/E/D/B1/B2/B6 | 아연
건강기능식품
총 15g(캡슐당 500mg X 30캡슐)